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3, 1077-1108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K-TABS) 타당화 연구*

이 현 지[1)] 김 가 림[1)] 권 유 리[2)] 신 윤 정[3)†]

[1)]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학사졸업
[2)]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3)]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TABS)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원척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쳤고,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원척도의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그 이후, 만 19세 이상 성인 총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형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K-TABS)는 22문항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3요인은 각각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으로 명명되었다. 다음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총 285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한 22문항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ABS의 내적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타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K-TABS의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타당도를 확인해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하였고, 연구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척도, 타당화, LGBT

---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가치탐구와 실천"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신윤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06호, Tel : 02-880-7640, E-mail : yj.shin@snu.ac.kr

www.kci.go.kr

2020년 상반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드러내는 두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하려는 뜻을 밝혔다 강제 전역당한 트랜스여성에 대한 논란이다(이근평, 2020. 1. 22). 다른 하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여성이 한 여자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으나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등록을 포기한 사례이다(허진무, 2020. 2. 7). 두 사건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트랜스여성이 다시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학을 지지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다른 한편에 존재했다(김민제, 강재구, 2020. 2. 11; 차창희, 2020. 8. 11). 상반된 두 입장의 등장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인식과 태도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를 향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가 다각화되고 있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가 실제로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트랜스젠더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란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이다. '성별 정체성'은 스스로를 여성, 남성 또는 제3의 성별로 느끼는 심리적 기제이고, '성별 표현'은 행동, 옷, 머리스타일, 목소리, 신체적 특징 등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이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해외에서는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경우를 통틀어 트랜스젠더라고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다를 때 트랜스젠더라고 지칭한다. 즉, 좁게는 FTM(Female To Male), MTF(Male To Female), 넓게는 FTM, MTF, 젠더퀴어를 트랜스젠더라고 간주한다(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이때 FTM은 트랜스여성을, MTF는 트랜스남성을 가리킨다. 젠더퀴어는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제3의 성별로 정체화한 사람들을 말한다(나영정 외, 2014).

트랜스젠더의 개념은 다른 성소수자 유형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를 동성애자, 간성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동성애자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성소수자의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동성애자는 트랜스젠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의 경계(gender boundaries)를 넘어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아닌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와 다르다(Konopka, Prusik, & Szulawski,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유형에 따라 사회적 가시화의 양상도 같지 않고,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과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Fisher et al., 2017; Leitenberg, & Slavin, 1983). 즉,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자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별개의 개념이다. 트랜스젠더와 혼돈되기 쉬운 성소수자 유형 중 다른 하나는 간성이다. 간성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식기, 내부 장기, 호르몬 등의 생물학적 신체기관이 여성, 남성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태 혹은 그런 상태를 지닌 사람을 지칭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간성에 해당하는

www.kci.go.kr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 및 남성으로 특정지을 수 없기에 트랜스젠더 종류 중 하나인 젠더퀴어와 혼동할 수 있다. 또한 여성 혹은 남성 중 하나로 성별을 선택해서 혹은 의사에 의해 선택되어져서 수술을 받을 경우, 간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트랜스젠더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간성과 트랜스젠더는 개인의 인식을 비롯해 사회적 수용도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간성은 생물학적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개인이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성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과 무관한 개념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심리적 차원에서 본인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느끼거나, 성별표현을 생물학적 성과 달리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며, 트랜스젠더는 간성처럼 선천적인 신체적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Cornwall, 2015). 즉, 간성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지정 성별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트랜스젠더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성별 정체성을 정정하거나 성별표현을 달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사회적 수용도를 살펴보면, 간성은 부분적으로 낙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한 낙인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가 간성에 비해 훨씬 낮다(Witten, 2004). 개인의 인식 및 사회적 수용도 등에 있어서 간성과 트랜스젠더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성과 트랜스젠더를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 개념은 2000년대 초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논의도 하리수의 커밍아웃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영희, 2007). 미디어는 하리수를 '유사 여성', '완벽한 여성이 될 수 없는 남성' 등으로 그려내어 트랜스젠더의 비정상성을 강화했다(박지훈, 이진, 2013).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트랜스젠더는 전통적 성별 규범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존재로 소비되어왔고,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학교, 직장, 구인・구직 과정,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온 사례들이 보고되어왔다(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기획단, 2006).

이와 같이 보고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및 배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혐오・괴롭힘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Lombardi, Wilchins, Priesing, & Malouf, 2002).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트랜스젠더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트랜스젠더가 직접 경험하는 어려움・차별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김보명, 2020; 민윤영, 2013;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관련 국내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성애의 경우, 이미 김용희와 반건호(2005)가 타당화한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국내 연구도 트랜스젠더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왔다(강양희, 홍민주, 2014; 김혜민, 유금란, 2020;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이다슬, 김예인, 신성만, 2019; 이봉재, 2006; 장인실,

www.kci.go.kr

2017).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설문조사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여론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거나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Yi, Luhur, & Brown, 2019).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측정할 수 있는 국내 도구가 전무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난 1년간 김기홍 퀴어 활동가, 이은용 작가 및 변희수 하사 등 알려진 트랜스젠더의 잇다른 죽음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편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을 시사한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편감, 그리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국내 트랜스젠더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을 보고한 최근 연구(박정은, 정서진, 남궁미, 2020)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레오타입 내용 모형(stereotype content model)에 따르면, 연민 혹은 공감에서 경멸이나 혐오까지 포함하는 '지각된 따뜻함(perceived warmth)'과 비교집단으로서 자부심과 존경을 일으키는 관계에서부터 경쟁적인 관계까지 아우르는 '지각된 유능함(perceived competence)'의 두 차원의 조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편견이며, 이러한 편견은 대상 집단에 따라 편견의 핵심 내용의 공통성을 가정한다(김청용, 2019). 이와 일치하는 시각이 반영된 27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설문조사의 경우(Flores, 2015; Luhur, Brown, & Flores, 2019) 국제적으로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사회적 관계, 및 이들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공통질문을 사용함으로써,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의 차이를 공통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을 측정하고자 먼저 개발된 척도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Kanamori, Cornelius-White, Pegors, Daniel과 Hulgus(2017)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TABS)를 번안 및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총 5가지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Hill과 Willoughby(2005)의 젠더리즘과 트랜스포비아 척도(Genderism and Transphobia: GTS), Nagoshi 등(2008)의 트랜스포비아 척도(Transphobia Scale: TS), Walch, Ngamake, Francisco, Stitt와 Shingler (2012)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Transgendered Individuals Scale: ATTI), Kanamori 등(2017)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TABS). Billard(2018)의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Transgender Men and Women: ATTMW) 이다. 5가지 척도 중 타당화하기에 적합한 척도를 선별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존에 개발된 해외 척도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척도의 요인구조가 3요인 이상이어야 한다.

www.kci.go.kr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이수, 2018; Hill, 2002; Worthington, Dillon, & Becker-Schutte, 2005). Hill(2002)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3가지로 나누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서적 불편감(transphobia),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genderism),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과 모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태도(gender-bashing)로 분류하였다. 안이수(2018)는 성소수자에 대한 국내 인식 유형을 분류했는데,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유형(우호적 인권 중시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하며 이들에 무지한 유형(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찬성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유형(중립 추구형)으로 나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 및 태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문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과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표현 대신 여성스러운 남성, 남성스러운 여성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쓸 경우,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트랜스젠더 유형을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등으로 세부 분화하지 않고, 트랜스젠더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을 분리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트랜스젠더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 및 측정하려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세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척도별로 두드러지는 특징들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Hill과 Willoughby(2005)가 고안한 젠더리즘과 트랜스포비아 척도(GTS)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려는 척도로,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척도 중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GTS는 2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트랜스포비아·젠더리즘' 25문항과 '젠더배싱(Gender-Bashing)' 7문항으로 나뉜다. '트랜스포비아'는 사회의 기대되는 성 역할 및 모습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감정적 혐오 및 두려움을 뜻하며. '젠더리즘'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해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즉, '젠더리즘'이 강한 사람은 전통적 성별 규범에 어긋나는 사람을 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젠더배싱'은 성별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폭력·모욕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Hill, 2002). 이때 '트랜스포비아'와 '젠더리즘'은 정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위요인 간 상관이 높아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합쳐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GTS는 2요인 구조를 보였다. GTS는 하위요인이 3요인 이상이 아니므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면적인 태도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GTS는 트랜스젠더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예: 나는 애인이 한때 다른 성별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나는 폭력적이게 될 것 같다). 이는 다소 '극단적인' 트랜스포비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트랜스

www.kci.go.kr

젠더를 향한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 수준을 측정하는 데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Walch et al., 2012). 이와 더불어, GTS는 '트랜스젠더'라는 표현 대신 '여성스러운 남성(feminine men)' 또는 '남성스러운 여성(masculine women)'과 같은 단어를 써서 트랜스젠더를 향한 직접적인 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Nagoshi et al., 2008).

다음으로, Nagoshi 등(2008)의 트랜스포비아 척도(Transphobia Scale: TS)는 9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GTS와 측정 시 동일한 제약이 존재한다(Kanamori et al., 2017). 이에 더하여 TS는 GTS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성별이 불분명한 사람(people whose gender is unclear to me)'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Billard, 2018). 예를 들면, '나는 길에서 성이 불분명한 사람을 만나면 피할 것이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도 TS는 문항 개발의 과정이 불분명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하기 어려웠다(Billard, 2018).

Walch 등(2012)이 제작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Transgendered Individuals Scale: ATTI)는 GTS가 가진 한계를 일부 개선하고자 했다. ATTI는 GTS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측정하는데 그친다는 점에 입각하여, 물리적 폭력에 관한 문항들을 없애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했다. 또한 기존 척도에서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ATTI는 문항에 'transgendered individuals'라는 표현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명시했다(Walch et al., 2012). 예를 들어, '나는 트랜스젠더와 일하는 것이 편안하다'와 같은 문항이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관점에서 ATTI에서 트랜스젠더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한 'transgendered individuals'라는 표현은 트랜스젠더를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Billard, 2018) ATTI 또한 20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뤄져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차원의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Billard(2018)는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Transgender Men and Women; ATTMW)를 개발하였다. ATTMW는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을 분리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ATTMW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ATTMW는 트랜스여성 및 트랜스남성을 각각 분리해서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어렵다(예: 트랜스남성은 진짜 남자가 될 수 없다, 트랜스여성은 자연스럽지 않다).

Kanamori 등(2017)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 및 믿음 척도(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TABS)는 2017년에 개발된 비교적 최신 척도로, 앞서 언급한 척도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먼저, TABS는 세 가지 요인구조-'인간관계에서의 편안함(interpersonal comfort)', '성별 고정관념(sex/gender beliefs)', '인간 존엄성(human value)'-로 이루어져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편안함'은 트랜스젠더와 인간관계를 맺을 시 편안함을

www.kci.go.kr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다. ‘성별 고정관념’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성별 정체성 및 성별이분법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다. ‘인간 존엄성’은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다(Kanamori et el., 2017). 또한 TABS는 인지적, 정서적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항들이 많아 트랜스젠더에 대한 미시적 차별(microaggression)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자녀가 트랜스젠더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나는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TABS는 문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직접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TABS는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을 분리하여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및 태도 수준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트랜스젠더 관련한 다면적 인식 및 태도 측정의 용이성, 트랜스젠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의 명료성 및 트랜스젠더 집단 전체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살펴보는 포괄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Kanamori 등(2017)이 개발한 TABS(Kanamori et al., 2017)을 선정, 번안 및 타당화함으로써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K-TABS의 수렴・준거・변별・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및 남성적 성역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총체성(Meeusen, 2017)의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모두 성소수자로서 유사한 수준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유사한 구인을 측정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Nagoshi et al., 2008)에 기반하여,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K-TAB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K-TABS과 권위주의적 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및 남성적 성역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단위협감 이론(Stephan & Stpehan, 2000)에 따르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기존의 질서 유지를 중시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의 축소로 인식할수록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데, 현 사회의 규범에 동조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개인에 대한 공격성이 특징인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남성적 사회적 기준에 순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위협감을 느끼고 강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Ching, Xu, Checn, & Kong, 2020; Konopka, Rajchert, Dominiak- Kochanek, & Roszak, 2019). 또한, 여성성을 위협받는 경우보다 남성성을 위협받을 때,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높고(Harrison & Michelson, 2019), 남성성 규준에 순응할수록 트랜스포비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onlin, Douglass, & Moscardini, 2021).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다는 점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Konopka et al., 2020; Miller et al., 2017; Norton

www.kci.go.kr

& Herek,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적인 성역할을 중시하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기존 이론과 경험적 결과들에 근거하여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남성성 성역할을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신이 한만큼 받아간다는 즉, 차별의 원인을 차별받는 자에게서 찾는 피해자 비난 귀인에 기반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Furnham, 2003)이론에 따르면, 성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흔드는 외집단인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위협이 되며, 따라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차별적 태도가 강화된다. Thomas, Amburgey와 Ellis(2016)도 최근 성별고정관념,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향,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감을 측정한 GTS(Hill & Willoughby, 2005)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간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K-TABS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부적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K-TABS 설문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며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으로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들에서 체계적 오류를 야기하기에, 변별성을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Robin & Babbie, 2008).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 태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변인인 연령(Ruffman et al., 2016), 종교성(Altemeyer & Hunsberger, 1992), 동성애에 대한 인식(Whitley & Lee, 2000) 변인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자기보고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 이외에 K-TABS가 추가적인 설명량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며 증분타당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척도를 타당화 하고자 하는 본 연구결과는 최근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면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내외적인 변인들에 대한 탐색 및 이러한 인식 및 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 및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차별금지 관련 교육, 제도 및 사회적인 정책 제언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06-050)을 받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주일간 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가자 모집 및 자료수집은 약 130만명의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리서치 회사(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대행하였다.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한 패널 분

www.kci.go.kr

포를 유지하고 있어,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사용, 성별과 연령별 비슷한 비율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한 후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약 10분 내외로 소요되었고, 설문을 모두 마친 참여자에 한하여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한국사회에는 트랜스젠더 개념을 잘 모르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참여자들은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개념을 모르고 동성애자와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태도 및 믿음 척도 문항에 응답하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위협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크리닝 문항은 '나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자와 다르다'이고 답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두 문항에 모두 '그렇다'를 답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스크리닝 문항에 통과한 600명의 자료를 각각 표본 1(300명), 표본 2(300명)로 무선할당하여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Comrey와 Lee(1992)는 요인분석 시 300개 이상의 표본 크기를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각 표본 당 300명의 표본을 무선배정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성별, 나이 등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표본 1과 표본 2에 각각 고르게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검증을 통해 표본 1과 2에서 주 척도(K-TABS)의 모든 변인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표본 2의 경우 다변량 이상치에 해당하는 15개의 자료가 발견되었다. 15개의 해당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실제 분석에는 총 285명의 자료를 사용했다. 표본 1과 표본 2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연령, 종교, 교육 수준, 성적지향, 거주지역)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동성애에 대한 인식 척도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소수자이자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Nagoshi et al., 2008). 이에, Hudson과 Ricketts(1980)이 개발하고 김용희와 반건호(2005)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동성애자인 남자 동료와 가깝게 일할 때 편안하다', '나의 가장 친한 동성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총 24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척도는 24문항 중 11문항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묻는 문항이고 나머지는 긍정문항에 해당한다. 본 척도를 활용하여 K-TABS와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부정문항을 긍정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점수를 산출해

www.kci.go.kr

표 1. 표본 1, 표본 2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표본 1 (*N*=300)		표본 2 (*N*=285)	
		n	%	n	%
성별	여	149	49.7	141	49.5
	남	151	50.3	144	50.5
연령	만 19세~29세	56	18.7	58	20.4
	만 30세~39세	66	22.0	52	18.2
	만 40세~49세	53	17.7	64	22.5
	만 50세~59세	70	23.3	49	17.2
	만 60세~69세	55	18.3	62	21.8
종교	천주교	30	10.0	34	11.9
	불교	32	10.7	26	9.1
	개신교	66	22.0	61	21.4
	무교	166	55.3	159	55.8
	기타	6	2.0	5	1.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3	0	0
	고졸	53	17.7	51	17.9
	전문대 재학중	0	0	3	1.1
	4년제 대학교 재학	19	6.3	18	6.3
	전문대졸	46	15.3	36	12.6
	4년제 대학교 졸업	148	49.3	149	52.3
	대학원 이상	33	11.0	28	9.8
성적지향	이성애	285	95.0	274	96.1
	동성애	0	0	1	.4
	양성애	7	2.3	4	1.4
	무성애	6	2.0	4	1.4
	기타	2	.7	2	.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3	31.0	79	27.7
	부산광역시	18	6.0	20	7.0
	대구광역시	10	3.3	13	4.6
	인천광역시	25	8.3	13	4.6
	광주광역시	8	2.7	8	2.8
	대전광역시	14	4.7	5	1.8
	울산광역시	2	.7	5	1.8
	세종특별자치시	4	1.3	1	.4
	경기도	78	26.0	78	27.4
	강원도	7	2.3	9	3.2

www.kci.go.kr

표 1. 표본 1, 표본 2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계속)

구분		표본 1 (*N*=300)		표본 2 (*N*=285)	
		n	%	n	%
거주지역	충청도	13	4.3	13	4.6
	전라도	17	5.6	15	5.3
	경상도	11	3.6	25	8.8
	제주도	0	0	1	.4

주. 인구통계학적 정보 분포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사용하였다. 김용희와 반건호(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4이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96이었다.

권위주의 척도

준거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dorno, Frenkel-Brenswik, Levinson과 Sanford(1950)가 제시한 권위주의적 성격 요인들을 토대로 민경환(1989)이 제작한 한국판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고, 총 35문항 9개의 하위요인(인습주의・권위주의적 복종・권위주의적 공격성・반내성주의・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파괴와 냉소주의・투사성・성)으로 이뤄져있다.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매우 동의한다=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녔음을 뜻한다. 민경환(198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90이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준거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Lucas, Alexander, Firestone과 LeBreton(2007)에 의해 제작된 척도를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과 김지수(2017)가 한국어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할 수 있고, 총 16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예: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예: 나는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과 총 16문항으로 이뤄져있다.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TABS는 개인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인지하는 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제외하고, 개인적 믿음을 측정하는 8문항만을 사용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www.kci.go.kr

인 믿음'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활용했다. 내적 일관성의 경우,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90,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분배공정성의 경우 .92, 절차공정성의 경우 .88이었다.

성역할 척도

준거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Bem(1974)이 개발하고 정진경(1990)이 한국형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 성역할 검사를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하정혜와 김현정(2016)이 단축형으로 구성・타당화한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다. 총 10문항으로 이뤄져 있고, 남성성 5문항(예: 씩씩하다, 대범하다), 여성성 5문항(예: 상냥하다, 친절하다)으로 구성되었다.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7점)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적 사회적 기준에 순응하는 사람일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Norton & Herek, 2013)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척도 중 남성성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했다. 김지현 등(2016)의 연구에서 성역할-남성성의 내적 일관성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남성성 내적 일관성은 .88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태도를 담고 있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K-TABS 간의 상관분석을 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Stöber(2001)이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배병훈, 이동귀와 함경애(2015)가 한국형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을 활용했다. 이 척도를 통해 응답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한 것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다. 2요인 9문항으로 이뤄져있다. 하위요인은 각각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예: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들에 직면한다)과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예: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이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게 구성되었다. 이때,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된 정도가 높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배병훈 등(2015)의 내적 일관성은 .61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66이었다.

연구 절차

원척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위해 척도 개발자 중 한 명인 Yasuko Kanamori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았다. 문항 번안 과정에는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교육상담 박사 과정생 2인과 연구자 4인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중언어자 중 1인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뒤, 다른 이중언어자 1인이 이를 역번역하였다.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

www.kci.go.kr

친 후, 연구자 4인은 이중언어자에 의해 번역·역번역된 문항들과 원척도 문항을 비교하며 1차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원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는 문항은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인식과 태도는 종교, 정치 등의 영향을 받기에 각 문화권마다 트랜스젠더가 가시화되는 양상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Worthen, Lingiardi, & Caristo, 2017). 따라서 TABS를 최대한 원문을 살려 번안화되 일부 문항의 표현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변형하여 타당성을 확인해보았다. 예를 들어, 원척도에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Transgender individual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housing as any other person).'라는 문항이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는 한국 문화보다는 주로 해외 문화권에서 많이 보고되는 사례이다(Kattari, Whitfield, Langenderfer-Magrude, & Ramos, 2016). 따라서 해당 문항을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잡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와 같이 한국 문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례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둘째, 트랜스젠더 집단 전체가 아닌 트랜스여성 혹은 트랜스남성으로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항을 트랜스젠더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트랜스여성으로 정체화했다면, 남성과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If a transgender person identifies as female, she should have the right to marry a man)'라는 원척도 문항을 '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로 수정하였다. 셋째, 원척도 문항에서 사용된 '트랜스젠더리즘(Transgenderism)'이라는 용어를 '트랜스젠더'로 대체하였다. '트랜스젠더리즘'은 '성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상태'를 뜻하는데(Cambridge Dictionary, 2020. 10. 13), 국내에서는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트랜스젠더리즘'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고 대중들에게 보다 익숙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로 '트랜스젠더리즘' 용어를 대체하였다. 아울러, 원척도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지만, K-TABS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7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연구 참여자가 응답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예비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심리학 박사 소지자이자 대학 교수인 전문가 3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자문 시 문항의 적절성과 명료도를 4점 척도(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 4점=매우 적절)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의 기타 의견은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점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1점=0, 2점=0.33, 3점=0.67, 4점=1). 자문 결과, 한 문항은 트랜스젠더보다는 간성에 해당하는 문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예: 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성기를 타고난 아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일부 번역투가 남아있는 문항들을 매끄럽게 다듬었고, 한국의 문화적 실정과 차이가 있는 문항이라고 피드백 받은 문항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28문항이 추출되었다.

www.kci.go.kr

이를 바탕으로 총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285명의 내국인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했다. 분석 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역채점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산하였다.

자료 분석

K-TAB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 1(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구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 2(285명)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도 K-TABS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했다. 아울러 K-TABS의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타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했다.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통계프로그램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이전,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해보았다.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보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문항의 양호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탁진국, 2007).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이 1.0 혹은 5.0에 가까운 극단적인 값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고,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문항도 존재하지 않았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모든 문항들에서 각각 절대값 3과 8을 넘지 않아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절대값 3과 8을 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과 문항-총점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 .80 이상일 경우 문항의 양호도를 저해하므로(West et al., 1995), 이에 해당하는 5문항(예: 나의 상사가 트랜스젠더라면 불편할 것이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트랜스젠더는 존엄한 인간이다; 어떤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기로 결정된다 등)을 삭제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이 .20 이하일 경우 양호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Kline, 2015),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없었다.

문항 삭제 이후 남은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KMO(Kaiser-Meyer-Olkin) 측도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값을 구하였다. KMO 측도값의 경우 0.6 이상이거나 1에 가까울수록,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5 미만일 때 요인분석에 적합하다(양병화, 1998). 분석 결과, KMO 측도치는 0.95이었고, Bartlett의

www.kci.go.kr

표 2. K-TABS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	나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식사한다면 편안할 것이다.	.904	-.043	-.092
2	트랜스젠더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편안할 것이다	.775	-.028	.054
3	나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일한다면 불편할 것이다. (R)	.768	.043	.038
4	나는 누군가가 트랜스젠더임을 알더라도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893	.018	-.073
5	나는 옆집 이웃이 트랜스젠더라도 편안할 것이다.	.766	.080	-.168
6	내 자녀가 트랜스젠더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	.819	-.041	-.037
7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다른 성별이었음을 밝힌다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R)	.516	.036	.171
8	나는 누군가가 트랜스젠더임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피할 것이다. (R)	.696	.134	.095
9	나는 트랜스젠더와 룸메이트가 된다면 거부하고 싶을 것이다. (R)	.763	-.094	.154
10	나는 트랜스젠더와 단 둘이 남겨진 상황이 불편할 것이다. (R)	.872	-.066	.049
11	지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다면 나는 아마도 그 사람과 예전만큼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다. (R)	.711	.099	.043
12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싶을 것이다. (R)	.562	.113	.180
13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탐색 중인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것이다. (R)	.135	.405	.189
14	누구든 자신이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야 한다. (R)	.183	.620	-.010
15	인간은 남성이거나 여성이다. 그 사이에 다른 성 정체성은 없다. (R)	-.042	.971	-.118
16	대부분의 인간이 남성이거나 여성이지만 그 사이에 다른 성 정체성도 존재한다.	-.102	.703	.174
17	모든 성인은 남성 혹은 여성 중 하나의 정체성만 가져야 한다. (R)	.003	.882	.004
18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받아야한다.	-.093	.002	.918
19	트랜스젠더가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나는 상당히 불쾌할 것이다.	-.074	.032	.758
20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202	-.028	.647
21	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	.073	.058	.615
22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065	-.041	.878
	고유값 (eigenvalue)	11.46	1.35	1.15
	설명변량 (%)	52.10	6.11	5.22

주. (R)은 역채점 문항임.

www.kci.go.kr

구형성 검정치는 χ^2=5216.95(p<.001)이었기에 요인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사각회전(promax)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Kaiser, 1960), 스크리 도표(scree plot)의 기울기(Cattell, 1966), 원척도의 요인 개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3개였고, 그림 1에서 나타나듯 스크리 도표의 기울기는 4번째 요인 이후부터 완만해졌다. 또한 원척도의 요인 개수가 3개라는 점을 감안하여, K-TABS의 하위요인을 3요인으로 결정하였다. 공통성이 0.4 이하일 경우 척도 적절성을 위해 삭제를 고려해야 하는데(Stevens, 2012),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이 1개 발견되었다. 이는 '나는 트랜스젠더에게 우호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편안할 것이다'였다. '트랜스젠더에게 우호적인 회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문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후 문항을 삭제한 뒤, 요인구조 행렬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구조는 이전과 동일한 3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총 문항의 개수는 기존 28개 문항에서 6문항이 제거된 22개였다. 요인구조의 누적 설명량이 60 이상이고,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4 이상일 때 요인구조와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요인분석 결과, 22문항 3요인 구조의 누적 설명량은 63.425였고,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4이상으로 나타나 요인구조 및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TABS 요인구조를 22문항 3요인으로 확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총 12문항으로 트랜스젠더와 인간관계를 맺거나 상호작용 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interpersonal comfort' 요인에 해당하며, 요인 1에 속한 모든 문항들은 원척도의 'interpersonal comfort'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에 원척도의 요인명과 문항내용을 참고하여 요인 1을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로 명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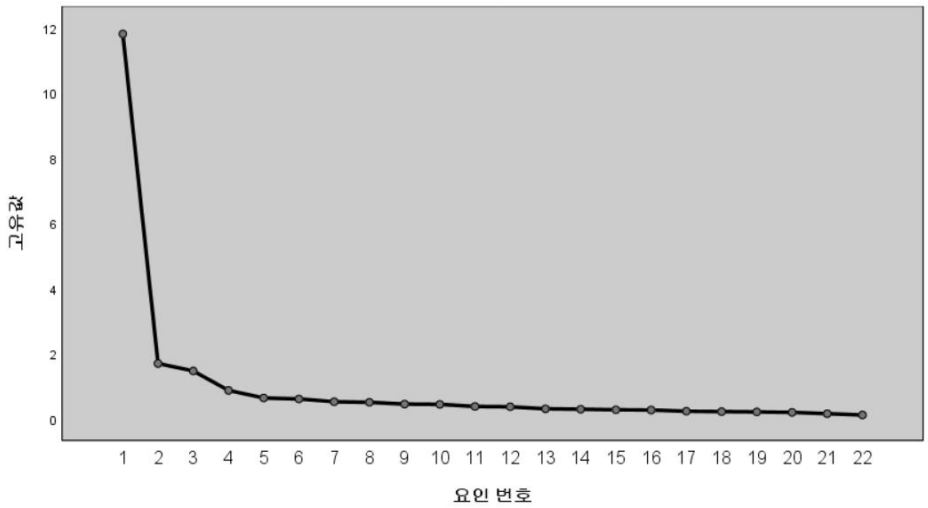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테스트 결과

www.kci.go.kr

였다. 요인 2는 총 5문항으로 생물학적 성별(지정성별) 및 성별이분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는 원척도의 'sex/gender belief' 요인에 대응되는 것이며 요인 2의 모든 문항들은 원척도의 'sex/gender belief' 요인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 2도 원척도 요인명과 문항내용을 참고로 하여 '성별 고정관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5문항으로 트랜스젠더 인권 존중 필요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human value' 요인에 해당한다. 요인 3의 경우, 한 문항(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원척도의 'human value' 요인에 포함되었다. 원척도에서 'sex/gender belief' 요인으로 분류된 '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 문항은 본 연구에서 요인 3으로 적재되었다. 요인 3은 요인 1, 2와 달리 모든 문항이 원척도와 동일하게 적재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문항을 제외하면 원척도와 구성이 일치한다. 따라서 요인 3을 원척도의 요인명과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K-TABS의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고,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의 경우, 요인 1은 .95, 요인 2는 .88, 요인 3은 .89이었다. 문항 삭제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2의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선정된 3요인 22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K-TABS의 모형 적합도 값은 χ^2=550.17 (p<.001), CFI=.93, TLI=.92, RMSEA=.078(90% CI[.069-.084]), SRMR=.06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CFI, TL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될 수 있고, RMSEA와 SRMR은 .05-.08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K-TABS의 3요인 구조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그림 2와 같이 .63-.86로 나타났다. K-TABS의 하위 요인과 전체 척도 간 상관관계와 하위 요인끼리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 모든 하위 요인은 전체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p<.001), 하위 요인끼리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K-TABS의 하위요인 간 상관이 다소 높게 나와서, 판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산추출지수(AVE)와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판별타당도 판단하는 기준은 분산추출지수가 하위요인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다는 것이다(Fornell & Larcker, 1981). 이에 해당 값들을 비교해보니, 모든 하위요인 별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하위

표 3. K-TABS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N=285)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3요인	550.17***	206	.93	.92	.078(.069-.084)	.06

주. ***p<.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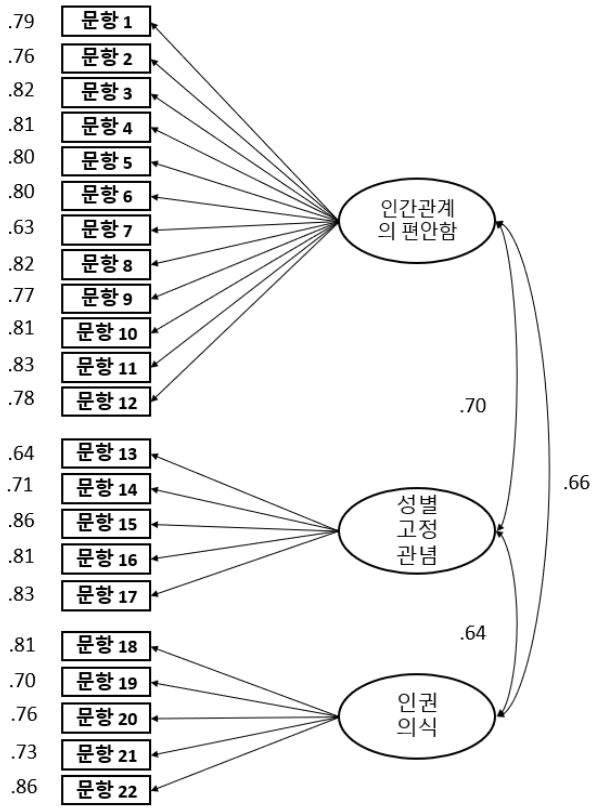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준화된 계수)

표 4. K-TABS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N*=285)

	K-TABS 총점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
K-TABS 총점	1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949***	1		
성별 고정관념	.836***	.677***	1	
인권의식	.783***	.622***	.607***	1

주 1. ***p<.001

주 2. K-TABS 총점과 하위요인은 모두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긍정문항으로 역채점한 결과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트랜스젠더와 인간관계를 맺을 시 편안함을 느끼고, 성별 이분법 및 지정 성별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낮으며 트랜스젠더의 인권 존중 및 보호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큼을 의미함.

www.kci.go.kr

표 5. K-TABS의 하위요인별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관계 제곱값 (*N*=285)

요인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	AVE 값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1			.624
성별 고정관념	.677(.458)	1		.600
인권의식	.622(.387)	.607(.368)	1	.600

주 1. 상관계수(상관계수의 제곱)

요인 분산추출지수보다 낮았다. 즉, K-TABS 하위요인들은 판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K-TABS의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였고,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의 경우, 요인 1은 .95, 요인 2는 .88, 요인 3은 .88이었다. 연구 1의 신뢰도 계수와 비교했을 때, 연구 1과 연구 2의 신뢰도 계수는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당도 분석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K-TABS와 동성애에 대한 인식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하였듯이, K-TABS의 총점과 3가지의 하위요인 모두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K-TABS와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준거 변인인 권위주의적 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분배공정성・절차공정성), 남성적 성역할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K-TABS 총점,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 모두와 권위주의적 태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의식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경우, 분배・절차공정성은 K-TABS 총점,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인권의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K-TABS의 하위요인 중 성별 고정관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K-TABS의 하위요인 중 성별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남성적 성역할은 K-TABS의 하위요인 중 성별 고정관념과 인권의식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K-TABS의 총점과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성적 성역할이 강할수록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의식이 낮음을 뜻한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K-TABS 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과 K-TABS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K-TABS 총점,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ABS의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www.kci.go.kr

표 6. K-TABS 수렴, 준거, 변별타당도 분석 결과 (*N*=285)

	K-TABS 총점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
동성애에 대한 인식	.657**	.670**	.575**	.353**
권위주의적 태도	-.350**	-.283**	-.375**	-.302**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분배	-.088	-.078	-.150*	.011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절차	-.064	-.049	-.169**	.064
성역할-남성성	-.105	-.060	-.144*	-.120*
사회적 바람직성	-.009	-.022	-.074	.112

주 1. *p<.05, **p<.01***, p<.001

주 2. K-TABS 총점과 하위요인은 모두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긍정문항으로 역채점한 결과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트랜스젠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트랜스젠더와 인간관계를 맺을 시 편안함을 느끼고, 성별 이분법 및 지정 성별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낮으며 트랜스젠더의 인권 존중 및 보호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큼을 의미함.

표 7.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N*=285)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SD*	*β*	*t*
권위주의적 태도	1단계	연령	.001	.002	.028	.460
		종교 유무	.028	.052	.032	.538
		동성애에 대한 인식	-.187	.038	-.300	-4.937***
		사회적 바람직성	.004	.057	.004	.069
		R^2	0.102***			
		ΔR^2	0.102***			
	2단계	연령	.001	.002	.028	.463
		종교 유무	.011	.051	.013	.217
		동성애에 대한 인식	-.083	.048	-.133	-1.710
		사회적 바람직성	.033	.057	.034	.584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63	.048	-.254	-3.398**
		R^2	0.138**			
		ΔR^2	0.036**			

주. **p<.01, ***, p<.001

www.kci.go.kr

의한 응답 편향의 우려는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ABS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바람직성 외에 K-TABS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적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바람직성을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K-TABS로 측정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인에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1단계에서 권위주의적 태도에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바람직성이 약 10.2%의 설명량을 나타냈다(R^2=.102, p<.001). 2단계에서는 K-TABS로 측정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3.6%를 더 설명했다(R^2=.138, p<.001). 이는 K-TABS가 권위주의적 태도에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바람직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지님을 뜻한다.

논 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가 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랜스젠더의 주관적 경험 못지않게 이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외에서 개발된 관련 척도 중 척도의 다차원성, 명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Kanamori 등(2017)이 개발한 TABS (Transgender Attitudes and Bliefs Scale)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TABS 문항을 번안했고, 전문가로부터 번안 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자문을 통해, 원 문항 중 일부를 변형 및 삭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28개의 예비문항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6문항이 삭제되었고 3요인 22문항 구조가 도출되었다. 이후 신뢰도를 검증했다.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3요인 22문항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K-TABS의 신뢰도를 검증했고, 수렴타당도・준거타당도・변별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K-TABS는 22문항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BS의 문항 내용과 구성은 원척도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와 달리 K-TABS는 원척도에서 7문항이 삭제된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범주(1문항), 하위요인 내 문항 간 상관(5문항), 공통성(1문항)을 고려하여 7문항을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원척도의 간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척도 범주에 어긋나므로 삭제하였다. 문항 간 상관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5문항은 타문항과 내용이 비슷하여 삭제하였다. 공통성이 낮은 1문항은 공통성이 낮기도 하고, 해당 문항에서 언급된 '트랜스젠더에게 우호적인 회사'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삭제하였

www.kci.go.kr

다. 즉, 원척도에서 내용 측면을 살펴보면, K-TABS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원척도의 일부 문항을 변형하였다. 예를 들어, 집을 구할 때보다 직장을 구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례가 한국의 문화에서 더 빈번히 보고됨을 고려하여(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기획단, 2006), 해당 내용을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정리하자면, K-TABS에서 삭제 및 변형된 문항들은 범주의 적절성, 문화적 차이, 문항의 중복 등으로 인해 한국형으로 타당화할 때 문항 변형과 삭제가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를 한국사회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원척도를 일부 변형하고 삭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문항 구성에 있어서도 K-TABS는 원척도와 차이가 존재한다. K-TABS는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이고, 요인별 문항 적재도 원척도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같았다. 하지만 K-TABS에서 인권의식에 배치된 '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의 경우, 원척도에서는 K-TABS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구자들이 문항을 수정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론된다. 해당 문항은 원문항에서 '트랜스여성으로 정체화했다면, 남성과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였다. 이는 트랜스젠더 전체집단이 아닌 트랜스여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 척도에서는 이를 '트랜스젠더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때, 수정 문항은 트랜스젠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할 권리를 묻고 있어 원 문항에 비해 지정 성별 및 성별 이분법적에 대한 관념이 덜 강조되었다. 때문에 수정된 문항이 '성별 고정관념'이 아닌 '인권의식' 하위항목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K-TAB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K-TABS 총점을 비롯해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K-TABS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척도와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척도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Hill과 Willoughby(2005)와 Billard(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모두 성소수자의 하위유형이기 때문에 양 척도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K-TAB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K-TABS와 권위주의적 태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분배공정성・절차공정성), 남성적 성역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권의주의적 태도의 경우, K-TABS 총점을 비롯한 3가지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트랜스젠더 집단에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cCullough, Dispenza, Chang, & Zeligman, 2019). 남성적 성역할 또한 K-TABS의 하위요인 중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권의주의적 성향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관련성이 높으며(민경환, 1989), 남성성은 여성성에 비해 외향성과 상관이 더 높고(Marusic & Bratko, 1998), 외향성은 힘, 권력 지향, 지배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Lippa & Arad, 199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본 연구 결과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성성이 강할 경우, 사회 전반에 지배

www.kci.go.kr

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정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기보다 배재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경우, 분배·절차 공정성 영역에서 모두 K-TABS 총점과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으며(Morrison et al., 2017; Thomas et al., 2016), 이에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가 약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K-TABS 하위척도별 타당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분배-절차 두 영역 모두가 K-TABS의 하위요인인 성별 고정관념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K-TABS의 성별고정관념(높을수록 지정성별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덜함을 의미)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인식 척도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은, 세상을 '정당한 세상'과 '정당하지 않은 세상'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성별 이분법적 사고와 높은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다(Thomas et al., 2016). 또한, K-TABS의 하위요인인 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의 경우,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의 분배-절차 공정성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으나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세상 안에서 차별을 받는 피해자에게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며, 특히 나와 집단으로서 공통성이 전혀 없다고 인식되는 피해자들일수록, 그들을 더 폄하하며 심리적 거리감을 보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Correia et al., 2012)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K-TABS의 하위요인인 인권의식은 분배·절차 공정성 영역과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근거가 성별 고정관념과 같이 타고나는 자연의 법칙을 수용하는 나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해자'인 트랜스젠더를 구분하고(Flynn, 2006) 이들을 타자화시킬 수 있는 개념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고 일관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타인뿐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인간으로서의 일상을 영위하는 기본 권리 인정일 경우에는 일부 모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Strobe, Postmes, Tauber, Stegeman, & Johne, 2015)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본 척도의 인권의식 하위영역의 경우, 이들의 성별 정체성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차별 당하는 걸 본다면 불쾌할 것이라는 연민 혹은 정서적 공감의 측면과 트랜스젠더의 입장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는 타인의 조망 수용이 함께 포함된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인권의식 척도의 특성으로 인해 정적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동정 혹은 연민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차별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 반응, 행동 등을 포함한 삶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해보는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과는 정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

www.kci.go.kr

(Lopez-Perez, Hancoch, Holt, & Gummerum, 2017)를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K-TABS의 하위척도별 다른 방향성을 보인 관계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태도는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으며, 정당성에 대한 주관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혜숙, 2018; Strobe et al., 2015).

이에 더하여, K-TABS와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별타당도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두 척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K-TABS 응답 결과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척도인 TABS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변별타당도를 가진다는 Kanamori 등(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K-TABS는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 사회적 바람직성 외에 권위주의적 태도에 추가적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연령에 비해 높은 연령이(Ruffman et al., 2016), 종교성이 짙을수록(Altmeyer & Hunsberger, 1992)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권위주의적 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한다(Whitley & Lee, 2000). 또한 권위주의적 태도에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싶은 응답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연령, 종교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1차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권위주의적 태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Miller et al., 2017) 고려하여 2차 변인으로 K-TABS로 측정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인을 추가했다. K-TABS가 권위주의적 태도에 추가적 설명량을 지닌다고 나타났다는 결과로 미루어보아, K-TABS는 앞서 언급한 변인들에 더하여 권위주의적 태도에 추가적 영향력을 지닌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번안 및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주관적 경험 못지않게 이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트랜스젠더 관련 선행연구들이 트랜스젠더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연구는 미비한 축에 속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타당화하여 관련 논의와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K-TABS는 한국 문화적 실정을 고려한 척도이다. K-TABS는 타당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상응하지 않은 일부 문항을 변형 및 삭제하였다. 성소수자가 가시화되는 양상은 문화권마다 다르다(Worthen et al., 2017).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원척도의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다면, 일부 문항은 한국 문화 관점에서는 현실성 없는 문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지 않고 한국

www.kci.go.kr

의 문화적 실정에 준하여 일부 문항을 변형하고 제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권에 보다 적합한 척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K-TABS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층적인 인식 및 태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Hill(2002)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를 크게 트랜스포비아, 젠더리즘, 젠더배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실시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유형'을 살펴보려는 연구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3가지 유형으로- 우호적 인권 중시형, 부정적 고정관념 및 편견형, 중립 추구형- 나뉘었다(안이수, 2018). 안이수(2018)의 연구는 포괄적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인식 및 태도의 유형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것이므로 안이수(2018)의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층적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K-TABS는 3요인 구조로-트랜스젠더와의 인간관계, 성별 고정관념, 인권의식-구성된 척도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인식 및 태도 수준을 측정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K-TABS를 임상적 및 학문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 측면에서는 상담자의 트랜스젠더 내담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상담자 교육에 K-TABS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K-TABS를 통해 상담자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고, 하위요인별 점수를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트랜스젠더 내담자와 상담 시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할 역량을 안내·교육할 수 있다. 또한 K-TABS를 사용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수준을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결과는 임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결과는 임상 장면에서 상담자의 트랜스젠더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법학·교육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 관련 정책 마련 및 교육과정 개편 등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TABS의 일부 문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다. K-TABS의 원척도에서는 묵종반응편향을 피하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과 부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을 모두 포함하였다(Kanamori et al., 2017). K-TABS에서도 원척도와 같이 긍정문항뿐만 아니라 부정문항을 모두 담고 있었다. K-TABS 속 부정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트랜스젠더와 함께 일한다면 불편할 것이다', '지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다면 나는 아마도 그 사람과 예전만큼 친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남성이거나 여성이다. 그 사이에 다른 성 정체성은 없다.' 이러한 문항은 문항 자체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고착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 문항 자체에 내포된 문항을 지양한 척도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둘째, K-TABS는 다양한 트랜스젠더 유형(예: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젠더퀴어 등) 각각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엄밀히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전무하다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트랜스젠더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트랜스젠더 유형을 아우르는 척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때문에 K-TABS를 통해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젠더퀴어 및 논바이너리와 같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인식과 태도를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트랜스젠더 유형이 확장되고 분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유형을 따로 나눠 이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척도는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타당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준거 타당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와 방향성은 확인이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부분적으로 보고가 되어, 후속 연구들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개념이 누구를 위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인지, 즉 자신 혹은 타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당성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 혹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다차원적이고 변화 가능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Strobe et al., 2015), 정의의 근원을 자신, 타인, 신, 기회, 자연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척도(Strobe et al., 2015) 등을 후속 연구에서 타당도 측정 도구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표본의 절반 이상이 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더 다양하게 하여 표집하여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양희, 홍민주 (2014). 경상남도 C 시 성인의 동성애 인식. 한국자료분석학회, 16(4), 2217-2228.

김민제, 강재구 (2020, 2, 11).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생 '입학 포기'에도…"계속 응원"지지 쏟아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60.html 에서 검색.

김보명 (2020). '여성공간'과 페미니즘-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1(3), 83-118.

김용희, 반건호 (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27-336.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하정혜, 김현정 (2016). 한국 단축형 성역할 척도(KSRI-SF: Korean Sex Role Inventory-Short Form)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7(1), 125-147.

김청용 (2019). 스테레오타입, 편견, 사회적 거리 연구를 위한 모형 모색: 스테레오타입 내용 모형 수정 및 확장. 사회과학연구,

www.kci.go.kr

26-4(9), 191-218.

김혜민, 유금란 (2020). 개념도를 활용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17-438.

나영정, 김지혜, 이승현, 장서연, 정현희, 조혜인, 한가람 (2014). 한국 LGBT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146-168.

민윤영 (2013).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법미학적 조명. 법철학연구, 16(2), 167-198.

박정은, 정서진, 남궁미 (2020).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99-1526.

박지훈, 이 진 (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8(1), 5-42.

박혜숙 (2018). 중고생 대상 인권감수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교육심리연구, 32(3), 443-469.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 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 (6), 177-197.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2006).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성전환자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http://transroadmap.net/items/에서 검색.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적 낙인과 의료적 주변화. 한국사회학, 51(2), 155-189.

안이수 (2018).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527-539.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이근평 (2020, 1, 22).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환...사유는 성전환 아닌 심신장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88418 에서 검색.

이다슬, 김예인, 신성만 (2019). 기독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신앙과 학문, 24(1), 123-164.

이봉재 (2006).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19.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장인실 (2017).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및 자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60-569.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차창희 (2020, 8, 11). '성전환 수술' 변희수 前 하사 "전역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25538/에서 검색.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www.kci.go.kr

허진무 (2020, 2, 7). 트랜스젠더 여학생 숙명여대 입학 포기.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2002071614001&code=940100 에서 검색.

한국성소수자연구회(2016).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한 12가지 질문. 서울.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243에서 검색

한영희 (2007). 젠더사회에서의 트랜스젠더 읽기. 문화과학, 49, 90-101.

Adorno, T., Frenkel-Bre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lte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2), 113-13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individuals with intersex conditions. Washington, D C. https://www.apa.org/topics/lgbt/intersex.pd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ransgender people,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Washington, DC. http://www.apa.org/topics/sexuality/transgender.pdf.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Billard. T. J. (2018)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men and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Frontiers in Psychology, 9*(387). 1-11.

Cambridge Dictionary[Website]. (2020. Oct 13). "Transgenderism".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transgenderism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245-276.

Ching, B. H-H., Xu, J. T., Chen, T. T., & Kong, K. H. C. (2020). Gender essentialism,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filial piety as predictors for transprejudice in Chinese people. *Sex Roles*, *83*(7-8), 426-441.

Conlin, S. E., Douglass, R. P., & Moscardini, E. H. (2021). Predicting transphobia among cisgender women and men: The roles of feminist identification and gender conformity.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5*(1), 5-19.

Correia, I., Alves, H., Sutton, R., Ramos, M., Gouveia-Pereira, M., & Vala, J. (2012). When do people derogate or psychologically distance themselves from victims? Belief in a just world and ingroup identifi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747-752.

Comrey, A. L., & Lee, H. B. (199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ctor analytic results. In Comrey A. L, & Lee H. B. (Eds.),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sdale, NJ: Lawarence Eribaum Associates.

Cornwall, S. (2015). Intersex and transgender people. *The Oxford handbook of theology, sexuality, and gender*, 657-675.

Fisher, A. D., Castellini, G., Ristori, J., Casale, H., Giovanardi, G., Carone, N., ... & Ricca, V. (2017). Who has the worst attitudes toward sexual minorities? Comparison of transphobia and homophobia levels in gender dysphoric

www.kci.go.kr

individuals, the general population and health care providers. *Journal of endocrinological investigation*, *40*(3), 263-273.

Flores, A. R. (2015).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rights: Perceived knowledge and secondary interpersonal contact.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3*(3), 398-416.

Flynn, T. (2006). The Ties that (Don't) Bind: Transgender Family Law and the Un-Making of Families. In Currah, P., Juang, R. M., & Minter, S.(Eds.), *Transgender Right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saddle River, NJ: Pearson University Press.

Harrison, B. F., & Michelson, M. R. (2019). Gender, masculinity threat, and support for transgender rights: An experimental study. *Sex Roles, 80*(1-2), 63-75.

Hill, D. B. (2002). Genderism, transphobia, and gender bashing: A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ti-transgender violence. In B. Wallace & R. Carter (Eds.),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violence: A multicultural approach* (pp. 113-136). Thousand Oaks, CA: Sage.

Hill, D. B., & Willoughby, B. L. B. (200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derism and Transphobia Scale. *Sex Roles, 53*(7-8), 531-544.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udson, W. W., & Ricketts, W. A. (1980). A strategy for the measurement of homo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5*(4), 357-372.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141-151.

Kanamori, Y., Cornelius-White, J. H. D., Pegors, T. K., Daniel, T., & Hulgus, J.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6*(5), 1503-1515.

Kattari, S. K., Whitfield, D. L., Walls, N. E., Langenderfer-Magruder, L., & Ramos, D. (2016). Policing gender through housing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comparison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transgender and cisgender LGBQ individuals.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7(3), 427-447.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Konopka, K., Prusik, M., & Szulawski, M. (2020). Two sexes, two genders only: Measuring attitudes to ward transgender individuals in Poland. *Sex Roles*, *82*(9), 1-22.

Konopka, K., Rajchert, J., Dominiak-Kochanek,

www.kci.go.kr

M., & Roszak, J. (2019). The role of masculinity threat in homonegativity and transphobia. *Journal of Homosexuality*, *68*(5), 802-829.

Leitenberg, H., & Slavin, L. (1983).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transsexuality and homosexual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2*(4), 337-346.

Lippa, R., & Arad, S. (1999). Gender, personality, and prejudice: The display of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in interviews with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4), 463-493.

Lombardi, E. L., Wilchins, R. A., Priesing, D., & Malouf, D. (2002). Gender violence: Transgender experiences with violence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89-101.

Lopez-Perez, B., Hanoch, Y., Holt, K., & Gummerum, M. (2017).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bullying among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7), 2591-2604.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Luhur, W., Brown, T. N., & Flores, A. R. (2019). *Public opinion of trangend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2017 IPSOS international Survey Series.* UCLA: The Williams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44v7q9h1

Marusic, I., & Bratko, D. (1998). Rela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with personality dimensions of the five-factor model. *Sex roles*, *38*(1-2), 29-44.

McCullough, R., Dispenza, F., Chang, C. Y., & Zeligman, M. R. (2019).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anti-transgender prejudi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6*(3), 359.

Meeusen, C. (2017). *The structure of (generalized) prejudice: The relation between contextual factors and different forms of prejudice*. *Doctoral Thesis,* KU Leuven.

Miller, P. R., Flores, A. R., Haider-Markel, D. P., Lewis, D. C., Tadlock, B. L., & Taylor, J. K. (2017). Transgender politics as body politics: effects of disgust sensitivity and authoritarianism on transgender rights attitudes.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5*(1), 4-24.

Morrison, M. A., Bishop, C. J., Gazzola, S. B., McCutcheon, J. M., Parker, K., & Morrison, T. G. (2017). Systematic review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ransphobia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18*(4), 395-410.

Nagoshi, J. L., Adams, K. A., Terrell, H. K., Hill, E. D., Brzuzy, S., & Nagoshi, C. T. (2008).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homophobia and transphobia. *Sex Roles, 59*(7-8). 521-531.

Norton, A. T., & Herek, G. M. (2013).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people: Findings from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of US adults. *Sex roles*, *68*(11-12), 738-753.

Robin, A., & Babbie, E. R. (2008). *Research methods*

www.kci.go.kr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Thompson Brooks/Cole.

Ruffman, T., Wilson, M., Henry, J. D., Dawson, A., Chen, Y., Kladnitski, N., ... & Hunter, J. A. (2016). Age differences i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their relation to emotion recognition. *Emotion, 16*(2), 226.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Oskamp, S.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23-46). Hillsdale, NJ: Erlbaum.

Stevens, J. P. (201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Routledge.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Strobe, K., Postmes, T., Tauber, S., Stegeman, A., & Johne M-S. (2015). Belief in just what? demystifying just world beliefs by distinguishing sources of justice. *PLoS One*, *10*(3), e0120145

Thomas, D. M., Amburgey, J., & Ellis, L. (2016). Anti-transgender prejudice mediates the association of just world beliefs and victim blame attrib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17*(3-4), 176-184.

Walch, S. E., Ngamake, S. T., Francisco, J., Stitt, R. L., & Shingler, K. A. (2012). The Attitudes Toward Transgendered Individuals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1*(5), 1283-129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Inc.

Whitley Jr, B. E.,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1), 144-170.

Witten, T. M. (2004). Life course analysis-The courage to search for something more: Middle adulthood issues in the transgender and intersex communit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8*(2-3), 189-224.

Worthen, M. G. F., Lingiardi, V., & Caristo, C. (2017). The roles of politics, feminism, and religion in attitudes toward LGBT individuals: A cross-cultural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USA, Italy, and Spain.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4*(3), 241-258.

Worthington, R. L., Dillon, F. R., & Becker-Schutte, A. M. (200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LGB-KAS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04-118.

Yi, H., Luhur, W., & Brown, T. N. (2019). *Public opinion of transgender rights in South Korea*. William Institute, UCLA School of Law.

원 고 접 수 일 : 2020. 12.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2. 15
게 재 결 정 일 : 2021. 05.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3, 1077-11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K-TABS)

Hyunji Yi[1)] **Garim Kim[1)]** **Yuri Kwon[2)]** **Yun-Jeong Shin[3)]**

[1)]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 Bachelor's degree holder
[2)]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Doctoral student
[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Transgender Attitudes and Beliefs Scale (K-TABS). First, the K-TABS items were translated and retranslated. Next, expert consultation resulted in the modification or removal of some item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then conducted with 300 adults. The result revealed a 3-factor structure with 22 items. The factors were: Interpersonal Comfort, Sex/Gender Belief and Human Value. Confirmator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285 adults. The confirmatory analysis confirmed the 3-factor, 22-item model. Internal consistency was .96. Convergent validity, criterion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with other scales. Additionally, incremental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hierarchical analysi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trans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minority, scale, validation, LGBT

www.kci.go.kr